

한협동정



01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총회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정기총회가 2006.04.21(금) 대전 호텔 스파피아에서 최영 식 회장 신부 외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03월 협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창립총회 이후 첫번째 개최되는 총회로 가톨릭-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등 각직능협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6년 협회의 예산안 및 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 이후에는 유진벨 재단 이사장 린던 박사를 초빙하여 '북한 지원사업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전년도에 이어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흥식 주교님께서 참석하시어 특별 격려사를 하

신 것에 이어 2007.02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 15차 세계병자의 날 교황청 행사 준비와 관련, 협회 임원들에게 사목과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행사가 주님의 은총아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병원이 협력할 것을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총회 의결사항

순번	의제	내용	의결사항
01	'07년 제15차 세계 병자의 날 행사 개최	- 2007.02.09-11일, 제15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 교황청 주관 세계대회 (매년 대륙별 순회 개최) - 한국에서 개최가 결정됨 (한국천주교 준비)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행사중 최고 비중의 행사 - 행사추진 - 주제, 예산, 장소, 기획, 준비, 위원회 구성 등 문제 협의를 통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함.	주제/장소/예산/조직 등 문제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기로 함
02	협회 분과위원회-원목팀 신설 운영건	- 회원병원별 원목팀의 사목, 영성진료 등 이념 및 복음화 실천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및 인사 교류 필요 - 회원병원 및 일반병원의 인사의 업무교류, 협의, 학술대회, 공동활동 등의 Activity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 전개가 회원병원 및 교회의 이념실천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위한 의제	-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본 사업안에 대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됨. - 빠른 시일내 CMC 원목팀을 중심으로 전국의 원목팀이 분과위원회를 결성, 활동을 하기로 함.
03	회원병원 LCD 모니터 설치 광고방영, 수익 모델 사업 유치	- 병원내 진료 대기환자 대상의 진료순번안내, 병원 홍보, 광고물을 위한 LCD 모니터를 진료분야(과)별 설치/운영하여 환자 대기중 무료한 시간 서비스제공 및 병원의 부수수익 창출을 위한 의제	- 사업자는 회원병원별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을 안내하고 - 사업추진을 원하는 회원 병원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기로 함.
04	해외의료선교 사업 추진건	- 해외의료선교사업을 협회 문화사업으로 정착화를 위한 회원병원 협력 및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어 새로운 계획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채널확보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여부 의결	- 분과위원회 구성 - 단원모집 - 몽골 해외의료선교 사업을 추진기로 함
05	기타 사업안	① 스마트카드 도입사업 향후 추진방향 ② '05년 수익사업 실적보고 및 동참동려 ③ Health & Mission 광고 협찬 건 ④ 정기세미나 행사 일정 등 3건 ⑤ 미국 SSM병원 초빙 교육관련 특강 진행 등	홈페이지 및 공문 참조



02

해외의료선교사업 협회 문화행사로 새롭게 구성기로.....



협회 '06년 정기총회에서 해외의료선교사업을 복음화와 자비의 정신이 충만한 협회 내 새로운 문화행사로 정착화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1989년부터 추진해온 협회의 해외의료선교 사업은 그간 CMC 김중호 신부(의사)께서 10년이 넘게 소수정예로 몽골, 에콰도르, 케냐, 콜롬비아 등 제 3세계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했다. 금년부터는 새롭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단장(1), 부단장(3), 진료분과, 약사분과, 간호분과, 문화분과, 총무/간사로 편제를 구성하고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단원을 공모하여 필요한 인력은 풀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의료선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몽골을 대상지역으로 정했으며 이미 몽골 정부측과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 놓은 상태로 오는 9월에 협회 16명의 단원이 파견되어 10일간 진료 및 도립 병원방문, 영화상영, 건강교육, 생활 개선교육 및 선교활동(간접)을 전개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본 사업과 관련, 1차 단원 공모 결과 40여명이 단원등록을 신청했으며 지원사업 해외 파견은 인력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03

본당연계가정간호사업 분과위원회 개최

'05 .10.14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결성된 본당연계가정간호사업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가 2006.04.18(화)에 CMC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회원병원에서 26명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는데 주요내용은 유인자 분과위원장님이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사항과 향후 회원병원이 공동 브랜드 창출을 위해 협력노력할 것을 주문하여 참석자의 긍정적 동의를 얻었으며, 회원병원별 사업현황을 소개하는 시간과 가톨릭대학교의 김순례 교수(간호대학)께서 '가정간호사업의 유형별 조직 및 사업운영 체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CMC의 조기치매치료 시범사업의 안내와 회원병원 확대실시 요청에 대한 협의, '수의(壽衣) 무료제공 사업' 확대실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또한 그간 공식이었던 분과부위원장에 메리놀병원 김숙희 전마 수녀를 선임했다. 차기 회의는 2006.07월 성빈센트 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04

제19차 한일가톨릭의료교류위원회 제주도에서 개최



20 06년 한일간 가톨릭의료사업교류위원회를 제주도에서 2006.06.07일부터 0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측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를 비롯한 임원진 8명과 일본측 성마리아병원 이데 요시오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이 참석하여 의제 현안을 협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정기교류행사(의료전문직연수, 가톨릭대학생 연수, 호스피스 간호사 연수 등)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고, 양국간의 교류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행정직원연수 및 어학연수를 신설하고, 간호대학 공동연수 확대, 친목 및 동호인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에 공

동 합의했다. 또한 2007.0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병자의 날 기념행사에 한국측의 일본측 초빙에 기여이 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7년 한일가톨릭교류위원회는 발족 20주년을 맞아 보다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관계는 매년 상호간 교대로 방문,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우호적인 국제 결연관계를 20여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교류사업이다.

